제1부 미시사의 방법과 자료

역사, 이야기, 그리고 정신분석학 / 정도언 _13

정신역사학에 대한 나의 미시사 _14
정신역사학의 시작, 전개, 그리고 논란 _16
정신역사학, 과연 살아남을 것인가? _39

구술사와 생애사 / 윤택림 _50

머리말 _50
구술사란 무엇인가 _53
생애사란 무엇인가 _75
구술사와 생애사를 통한 사료 구축 _81
맺음말 _84

의료 인물사와 병원 아카이브즈 / 김익한 _89

왜 병원 아카이브즈인가? _89
병원 아카이브즈의 기본 구조 _91
병원 아카이브즈에 기반한 의료 인물사 _109
몇 가지 제언 _115

제2부 동아시아 1세대 의사들을 찾아

근대 중국 1세대 의사들의 삶 : 험난한 여정 / 브라이디 A. 미너한 _127

머리말 _127
윙푼(1829-1878)과 중국 선교 의료에서의 인종 차별 _130

딩푸바오와 전문직 자치의 시작 _145
마리온 양과 의료전문직에 대한 중국공산당의 영향 _161
맺음말 _169

일본 근대 의사 3인의 선택: 서양의학과 한의학 사이 / 가토 시게오 _177

머리말 _177
천황의 서양의학 시의, 이케다 겐사이 _181
한방의학 부흥운동의 주창자, 와다 게이주로 _185
대체의학을 도입한 시골의사, 가토 다카시 _188
맺음말 _196

대만의 1세대 남녀 산부인과 의사: 식민지적 의료 근대화와 젠더 / 푸 다이위 _200

대만의 식민지 의학 교육과 성차별 구조 _200
대만 산부인과의 '곤혹스런' 여명 _209
산부인과의 요원한 대상: 일제시대 대만 여성의 삶 _214
가오징위안, 최초의 대만인 산부인과 의사 _222
대만 식민지 의학의 또 다른 경로: 일본 유학 출신의 여의사들 _233
차이아신, 대만 최초의 여자 산부인과 의사 _239
대만 산부인과의 근대적 형성과 새로운 희망 _ 243

한국인 1세대 의사들의 엇갈린 선택: 전통의학과의 공존과 결별 / 이흥기 _258

머리말 _258
의학교 졸업생 장기무 _260
일본 유학생 강병옥 _280
맺음말 _295

찾아보기 _307